

2010년 설날 아침 가정 예배 순서

= 2010년도 우리가족 신앙표어 =
나눔과 섬김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가정!

설날 함께 드리는 기도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복된 설날을 허락하시고 우리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된 것이 우리에게 화평의 가정을 물려준 우리 선조들의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 덕분인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부모님의 은덕을 감사하며 사랑과 존경으로 섬기라고 하셨으니, 우리를 낳고 기르시며 온갖 노고를 겪으신 부모님의 은혜를 갚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분들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올바르게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분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내리시어 주님의 은총으로 선행을 닦으며 여생을 편히 지내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창조의 은총으로 자녀를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주님께 봉헌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은총으로 보호하시어 세상의 원칙보다 하나님의 원칙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모든 악의 유혹을 물리치며 소외된 자, 아픈 자, 작은 자와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게 하소서.

우리 가정을 주님의 보호에 의탁하오니 모든 악습과 허황된 욕망과 세상의 헛된 자랑을 버리게 하시고, 믿음과 사랑, 지식과 절제, 인내와 경건으로 우리 가정을 채워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날 아침 감사 예배

(온 가족이 둥그렇게 둘러앉아 예배를 드리는데, 이 때 상을 차려 놓고 둘러앉아도 무방하나 유교의 제사처럼 상을 앞을 향해 놓으면 안된다. 가족 중에 믿음의 연장자가 예배를 인도하면 된다.)

※ 이 예배문은 ‘한국기독교가정생활사’에서 만든 “가정예식서”에서 인용하였습니다.

▣ 예배의 초대

(인도자) “오늘 우리는 설 명절을 맞아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고, 또한 우리를 낳아 주시고 양육하신 조상의 사랑과 교훈을 기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조상의 신앙과 유훈을 되새기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립시다.”

▣ 찬 송 < 새 552장 (통 358장) >

▣ 교독문 < 시편 23편 > (인도자와 가족들이 한 줄씩 교대하여 읽는다.)

인도자 :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가 족 :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설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느도다.

인도자 :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느도다.

가 족 :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인도자 :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가 족 :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 기 도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기도하거나 앞면의 기도문을 모두 함께 낭독한다.)

▣ 성경봉독 < 창세기 15:1~11 >

■ 말 씀 < 우리의 방패와 상급이신 하나님 >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1절)” 설을 맞아 한 자리에 모인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올 한 해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십니다. 하나님께서 방패라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 그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방패와 상급이 되십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푸른 초장과 설 만한 물가에서 즐거워하는 날도 있을 것이고,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날을 만난다 해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늘아버지께서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넘어뜨리고 거꾸러뜨리려는 것들에게서 지키시고 보호해주실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상급이십니다. 먼저,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상급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복)을 주시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노래했습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시16:2)”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상급이시며 복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만이 참된 복, 흔들림이 없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은 우리의 유일한 상급이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방패요 상급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증거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늘을 우리러 못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4~5절)” 그리고 이 언약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이 나오게 하셨습니다.(히 6:14~15)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아브라함에게처럼 방패와 상급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방패와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더 사랑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시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도 누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와 우리 가정에 충만케 해주실 것입니다.

■ 찬 송 < 새 301장 (통 406장) > (혹은 가족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을 부른다.)

■ 마침기도 (온 가족이 함께 아래 아론의 축복기도를 드린다.)

“여호와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 6:24~26).”

오늘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이뤄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설날 아침 성묘 예배

(묘소에 도착하면 먼저 조용히 기도하고 모두 도착하는 대로 묘소를 향하여 서거나 둘러앉아 예배를 드리되 음식은 차리지 않는다. 여러 묘소를 차례로 성묘하는 가족들은 예시된 찬송과 성경 중 하나씩 택하여 예배를 드리도록 한다.)

▣ 목 도

(인도자) “다같이 마음을 정리하고 조용히 묵상하며 성묘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인도자가 시편 72편 5~11절을 읽거나 그대로 조용히 기도한다.)

▣ 찬 송 < 새 553장, 새 559장(통 305장), 새 563장(통 411장), 새 569장(통 442장) >

▣ 기 도 (여러 묘소를 차례로 성묘하는 경우 가능하다면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기도하도록 하면 좋다.)

▣ 성경봉독

구약 - 시편 121:1~8, 잠언 3:1~10, 전도서 3:1~11
신약 - 누가복음 16:19~31, 고린도후서 5:1~5,
에베소서 1:11~14, 요한계시록 21:1~7

▣ 덕 담 (설교를 대신하여 참석자 중 어른이 가문과 조상들에 대해서, 또는 돌아가신 분들의 생전의 기억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덕담을 나눈다.)

▣ 기 도 (덕담을 하신 어른이 가족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여러 묘소를 성묘하는 경우 한 곳에서 한사람을 위해 전가족이 기도해주면 좋다.)

▣ 찬 송 < 새 301장(통 460장), 새 382장(통 432), 새 408장(통 466장), 새 506장 >

▣ 주기도 (인도자가 주기도문을 드린 후 예배가 마친 것을 선언한다.)

(인도자) “성묘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온 가족들이 올 한해도 복되고 건강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후에는 묘소 주위를 돌아보며 정리하고 가족 간에 사랑을 나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역대상 4:10)